‘제17회 한·중 청소년스포츠 교류’ 성료

한·중 선수단 159명 참가…배드민턴·농구·탁구 등 우정 다져
광주시선수단, 한국 대표로 환영연·문화탐방·환송연 등 참여

한·중 선수단 159명이 참가한 ‘제17회 한·중 청소년스포츠 교류’가 중국 충칭시 다쭈구에서 7일 성료했다.

한국선수단 대표로 파견된 광주시선수단은 종목별 스포츠 교류전을 비롯해, 환영연, 문화탐방, 환송연 등에 참여하며 중국의 청소년 스포츠 선수단과 우의를 다졌다.

이번 교류 행사에는 배드민턴(전대사대부중, 광주체중)과 농구(광주수피아여중, 문화중), 탁구(빛고을클럽, 경신중, 송정초, 태봉초) 등 3개 종목에서 광주 선수단과 임원 79명, 중국 선수단 80명이 참가했다.

지난 1일 선수단은 환영식을 시작으로, 2일과 3일 각 종목별 경기장에서 합동훈련을 한 뒤 4일 연습 경기를 진행했다. 5일에는 공식 경기를 통해 선의의 경쟁을 펼쳤다.

훈련 및 경기는 종목별로 충칭시 다쭈구종합체육관(탁구·배드민턴), 해당중학교·향국초등학교(농구)에서 진행됐다.

광주 선수단은 교류전을 마친 뒤 친교의 시간·레크리에이션을 통해 중국 선수단과 친목을 다졌고, 6일에는 용수호, 바오딩산 다쭈석각, 우웨광장 등을 탐방하며 중국의 문화를 직접 보고 배웠다.

2008년부터 시작돼 올해로 17회를 맞이한 한·중 청소년스포츠교류는 매년 양국 선수단의 상호 초청·파견의 형태로 진행되며, 청소년들이 스포츠를 통해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우정을 증진하는 기회를 제공해 왔다.

지난 7월에는 중국 선수단이 광주를 방문해 합동훈련과 공식 경기, 문화탐방 등 다양한 교류 활동을 진행한 바 있다.

이번 교류 행사는 청소년들이 미래 스포츠 리더로 성장하는 데 필요한 협동심과 포용력 등 스포츠 정신을 함양하는 계기가 됐다.

수피아여중 최예원(3년)은 “함께 몸을 부딪치며 농구하면서 더 많이 친해질 수 있었다. 중국 선수들의 운동 방식과 훈련에서 우리가 한국에서 하던 것과는 또 다른 프로그램들이 있어 신기했다”며 “교류 행사를 통해 새로운 스포츠 문화와 경기 규칙 등을 더 잘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가짐이 된 것 같다”고 밝혔다.

같은 학교 김담희(3년)는 “저번에 광주에 왔던 중국 친구들과 다시 만나 반가웠다. 함께 운동하고 서로의 훈련 방식을 따라 하면서 색다른 운동 방식을 접하게 됐다”며 “합동훈련을 통해 중국 코치님이 알려주시는 스타일의 농구를 직접 배우며 나의 부족한 부분도 알게 되었고, 중국 친구들과 함께 하면서 내 장단점을 더 명확히 알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또 “언어는 잘 통하지 않지만, 중국 친구들과 레크리에이션을 통해 서로 이야기 나누고 웃으며 의미 깊은 시간을 보냈다. 일주일간 얻은 배움과 즐거움이 기억에 오래 남을 것 같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제17회 한·중 청소년스포츠교류에 참가한 광주시 선수단이 지난 5일 중국 충칭시 향국초등학교에서 중국 선수단과 공식경기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광주시체육회 제공〉

전남-서울 생활체육 동호인들 재회

서울서 교류행사 열려

20년째 우정을 이어온 전남-서울 생활체육 동호인들이 1년 만에 서울에서 재회했다. 〈사진〉

‘2024 전남-서울 생활체육 우호교류’ 행사가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강북청소년센터 체육관 등 서울 일원 4개 경기장에서 진행됐다. 전남과 서울은 선수단 종목별 교류를 통해 시·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지난 2023년 순천에서 열린 ‘제35회 전남생활체육대축전’에 참가했던 서울시는 이번 행사에 전남 선수단을 초청했다. 이번 행사에는 검도·수영·농구·족구 총 4개 종목에 60여명의 전남 체육동호인들이 참가해 선의의 경쟁을 펼쳤다.

양 지역 선수단은 체육행사 외에도 대학로 연극관람, 잠실종합운동장과 롯데타워 일대 견학 등으로 문화체험을 공유하며 우호 관계 증진을 도모했다.

한편 전남-서울 생활체육 우호교류는 지난 2004년 협력관계 체결 이후 올해 20년째를 맞았다. 이들은 오는 2025년 영광에서 개최되는 ‘제37회 전남생활체육대축전’에서 다시 만나게 된다.

/서민경 기자 minky@kwangju.co.kr

‘영암출신’ 서창완, 근대5종 국가대표 선발전 1위

2024 파리 올림픽에서 7위에 오른 ‘영암출신’ 서창완(국군체육부대)이 내년도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1위를 차지했다.

서창완은 7일 경북 문경 국군체육부대에서 열린 2025 근대5종 국가대표 선발전 남자부 결승에서 펜싱, 장애물 경기, 수영, 레이저 런(육상+사격) 합계 1545점으로 1위에 올랐다.

서창완은 펜싱 랭킹라운드에서 260점을 쌓아 선두를 달렸다. 승마 종목이 사라지면서 올해 선발전에 처음으로 도입된 장애물 경기에서는 322점(9위), 수영에서 295점(8위)을 추가했다. 레이저 런에서 네 번째로 결승선을 끊어 668점을 얻은 서창완은 이민서(1530점·인천체육회)를 제치고 가장 좋은 성적으로 선발전을 통과했다.

2020 도쿄 올림픽 동메달리스트이자 파리 올림픽 6위인 근대5종 간판 전웅태(광주시청)는 철심 제거 수술 일정으로 선발전에 불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받은 사랑 장애인들께 베풀고 싶어요”

광주시청 장애인양궁팀 김옥금씨
시근육장애인협회에 기부금 전달

광주시청 장애인양궁팀 김옥금(왼쪽)이 7일 광주시근육장애인협회에 기부금 300만원을 전달한 후 차진환 광주시근육장애인협회장(오른쪽)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양궁을 시작한 지 올해로 11년이 됐어요. 그동안 좋은 환경에서 운동할 수 있도록 지원받았으니 이제는 저와 같은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께 베풀고 싶습니다.”

광주시청 장애인양궁팀 김옥금이 7일 광주시근육장애인협회에 기부금 300만원을 전달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나눔을 실천한 그는 “근육 장애인들은 버킷리스트가 여행인 분들이 많다. 불편함 없이 움직이기 위해 두 사람 이상의 도움이 필요하고 가까운 곳을 이동하는 데도 제약이 많아 우리들에게는 ‘여행’이 시간 있다고 떠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며 “근육 장애인을 위한 여행비용·인공호흡기 지원 등에 보탬이 됐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밝혔다.

‘2023 체코 필젠 장애인 세계선수권대회’에서 동메달을 목에 걸고 2024 파리 패럴림픽 출전권을 따냈던 그는 지난 3월 두바이에서 열린 ‘제8회 파자 파라 양궁 월드랭킹대회’에서 개인 종합 우승을 차지하기도 했다. 당시 그는 한국 대표팀 중 유일한 메달이자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그는 “화살이 손을 떠날 때 10점이면 10점, 느낌이 온다”며 “점수가 잘 나오든 못 나오든 내가 쏘는 대로 과녁에 시원하게 박힐 때 정말 묵은 체증 내려가듯 속이 싹 풀린다”고 말했다.

또 지난달 ‘제44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양궁 컴파운드 개인전 W1 경기에서 ‘패럴림픽 전우’ 박홍조(서울시청)를 누르고 결승에 오른 그는 함태진(경남장애인양궁팀)에 1점 차로 패하며 2위를 기록했다.

“컴파운드(W1) 등급 여성 선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남자 선수와 함께 겨루는 컴바인 종목이었습니다. 메달로 따지면 아쉬운 결과라 할 수 있겠지만 후회 없는 경기였어요.”

김옥금은 양궁 안산(광주은행)·기보배(광주시청)와 오는 2025 광주세계(장애인)양궁선수권대회의 홍보대사로도 활약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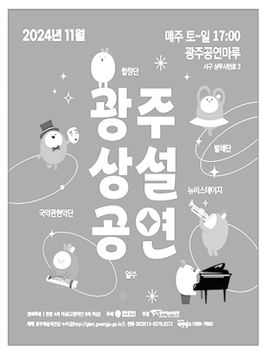
그는 “2024 파리 패럴림픽을 준비하면서 장애인양궁 종목을 세계에 알리고 싶다는 마음이 정말 간절했다. 그래서 결정적인 실수로 메달 도전이 좌절되고 후회도 많이 했다”며 “홍보대사로서 종목과 대회를 알리는 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를 지도하는 안형승 광주시청 장애인양궁팀 감독은 “만 64세의 나이에 현직에서 활동하면서 세계랭킹 1위도 경험했고, 내년 세계선수권과 2028 LA 패럴림픽 도전을 위해 쉴틈없이 훈련하는 김옥금이 인간 대 인간으로 존경스럽다”며 “지역에서 세계장애인선수권대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응원을 보내주시는 강기정 시장과 시민들 덕에 좋은 환경에서 훈련할 수 있어 늘 감사하다”고 전했다.

/글·사진=서민경 기자 minky@kwangju.co.kr

즐거운 문화산책

광주예술의전당 문의 062)613-8233



2024 광주상설공연(11월)
일시 : 2024-11-02(토) ~ 2024-11-30(토)
매주 토요일~일요일 오후 5시
* 11.15.(금) 오후 7시 기획공연 〈청년국악 힐링 콘서트〉
장소 : 광주공연마루
문의 : 062-613-8379, 8372

GAC 공모전시 조조선섬유조형회 특별전
: 엮고 물들여 쌓은 아름다움으로 위로하다
일시 : 2024-11-1(금) ~ 2024-12-1(일)
공연 있는 날 10:30 ~ 19:30
공연 없는 날 10:00 ~ 18:00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갤러리
문의 : 062-613-8357